한국을 빛내는 무용가들

문 애 령 | 무용평론가

이번‘ 한국을 빛내는 무용스타 초청공연 ’은 지금까지의 발레리나 중심에서 벗어나 현대무용가들을 함께 부각시킨 최초의 공연으로 의미가 있었다. 우리 무용가들이 전 세계에 퍼져 고전과 다양한 현대발레를 거쳐 최근의 현대무용 까지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깊게 생각할 기회였다.

해외무용단에서 활약하는 우리 무용가들이 많아졌다. 허용순이 외국단체에서 활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저 특별한 경우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불과 10년 전이었다. 그러나 허용순은 이미 그보다 수년 전에 프랑크푸르트 발레단에 입단해 있었다니 외국 소식에 어둡거나 관심이 없었던 셈이다. 강수진이 로잔느 콩쿠르에서 금상을 받고 스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한 사실도 당시에는 아주 신기한 이야기였다. 어느날 김나영이 독일에서‘ 성장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대단한 인물이라고만 생각했다.

김혜영이 애틀란타 발레단으로, 최광석 역시 그쪽으로 떠났을 때는 우리 발레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러나 곽규동 까지 네바다 발레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기심이 생겼다. 그만큼 외국에서 탐내는 무용가들이 많아진 것이다.

어느날 강예나가 아메리칸 발레 씨어터에 입단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랑스러웠다. 러시아의 볼쇼이 발레단과 키로프 발레단에 입단한 배주윤과 유지연은 금의환향한 경우였다. 국내무대에 알려져 있었던 다른 무용가들과 달리 조기유학을 통해 국외에서 성장해 차례로 내한공연을 가졌다.

지난해에는 장 끌로드 갈로타 무용단의 리용 공연에서 김희진이 무대를 빛냈다. 그 단체의 명성이 높은 만큼 놀라운 일이었다. 이밖에도 정확한 라인을 가장 엄격하게 요구하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 입단한 김용걸에 대한 기대는 남다르다. 키로프 발레단의 객원 주역이었던 문훈숙이나 이원국이 뿌린 씨앗의 결실로도 볼 수 있는 무용가들의 이러한 해외 활동은 앞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강수진이 주역으로 활동하는 독일 스투트가르트 발레단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드라마발레의 산실이다. 1961년에 존 크랑코가 예술감독을 맡아〈로미오와 줄리엣〉〈오네긴〉같은 명작이 만들어졌고 그 명성으로 세계적인 발레단이 되

었다. 존 노이마이어와 지리 킬리안 같은 안무가들이 이곳을 통해 성장했고 73년 크랑코의 사망이후 글렌 테틀리와 마르시아 하이데를 거쳐 레이드 앤더슨이 예술감독을 맡았다.

김용걸이 소속된 파리오페라 발레단은 발레역사의 출발지다. 1669년 파리 왕실 음악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최초의 직업단체였으며, 19세기 중반까지 발레역사의 중심지였고 낭만발레를 꽃피워 발레의 대중화를 이룩한 본거지였다. 그 전통 때문인지 섬세한 발레의 묘미에서는 아직까지 세계 최고의 기량을 자랑한다. 발의 다섯가지 포지션을 만든 피에르 보상에서 이론가 장 조르쥬 노베르, 안무가 아르뛰르 생-레옹까지, 세르쥬 리파르에서 루돌프 누리예프와 페트릭 듀퐁을 거쳐 현재 브리지트 르페브르에 이르기까지 역대 예술감독의 이름만으로도 화려하기 그지없는 전통의 보고다.

LG아트센터에서 주최한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초청공연(7. 14 -15)에 참가한 허용순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윌리엄 포사이드의 작품을 익힌 이후 스위스 바젤 발레단의 주역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독일 뒤셀도르프 발레단원이다. 뒤셀도르프 발레단의 역사는 17세기에 시작되지만 1950년대에 현대무용과 발레를 혼합시킨 이본느 게오르기와 쿠르트 요스의 현대발레 작품을 거치며 유명해졌다.

이번에 허용순이 공연한 마츠 에크의 두 작품은 모두 한국 초연이라 특별한 관심을 모았고 허용순의 탁월한 해석과 기량으로 갈채를 받았다. 마츠 에크는 독특한 해석을 담아 고전 명작을 망치는(?) 재주로 세계적인 갈채를 받았다. 〈봄의 제전〉에서 기모노를 입고 무릎을 꿇어 남자를 모시는 일본 여성들의 희생을 풍자한 장면이나 지젤을 신분상승을 꿈꾸는 촌닭으로 끌어내린 해석은 끔찍했다. 1945년 생인 그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무용가 비르지트 쿨베르그의 아들이다. 연극을 먼저 공부한 이후 20대 후반에 무용을 시작했고 뒤셀도르프 발레단원으로 잠시 활동하다 마츠 에크 쿨베르그 발레단을 통해 76년부터 안무를 시작했다. 이번에 공연한 〈카르멘〉과 〈둘을 위한 독무 Solo for Two〉에는 같은 무용단원 유룩 시몬이 허용순과 함께 출연했다.

2000년, 김희진이 장 끌로드 갈로타 무용단에 입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실력은 언제고 평가받는다 ’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1950년 생인 장 끌로드 갈로타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안무가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의 정기 공연을 계기로 김희진이 입단하게 되었는데 김용걸의 경우처럼 외국유학을 거치지 않고 외국단체에 발탁된 극히 드문 경우라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 이번 무대에서 김희진은 95년에 발표해 호평을 받았던 〈익명의 사회〉를 다듬어 재공연 했다.

피나 바우쉬 무용단의 김나영도 한국을 떠난 지 15년이 되었다고 한다. 폴크방 무용학교를 졸업하고 카셀시립극장과 폴크방 탄츠 스튜디오를 거쳐 96년에 부퍼탈 무용단에 입단했다. 독일과 미국의 무용을 하나로 결합하며 독자적 시각을 강조하는 피나 바우쉬의 명성은 현재 어느 발레단 못지않은 세계적인 것이다. 부퍼탈 댄스씨어터는 1973년 이 도시가 피나 바우쉬를 초청해서 만든 무용단으로 30여명의 무용가들이 해외 순회를 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김나영은 자신이 안무한 독일 스타일의 여성 2인무 〈하나, 그리고 둘〉을 선보였다.

김혜영이 주역을 맡고있는 애틀랜타 발레단은 1929년에 도로시 알렉산더 컨서트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창단되어 67년에 개명했다. 고전발레 레퍼토리를 주로 하는 발레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물론 현대발레도 공연한다. 김혜영은 같은 단원인 챠오 첸과 〈해적〉 2인무를 추었고 스태턴 웰츠가 안무한 독무 〈유쾌한 정원 Garden of Mirth〉을 한국초연 했다. 스태턴 웰츠는

1969년 호주태생으로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발레단에서 서로 끌어가려고 하는 인기있는 젊은 안무자다.

최광석은 애틀란다 발레단을 거쳐 현재는 산 호세 발레단에서 주역을 맡고 있다. 2000년, 로랑 프티의 〈카르멘〉에서 돈 호세 역을 맡았던 흥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다. 산 호세 발레단은 아이안 호바쓰와 데니스 나햇이 1976년에 클리브랜드 발레라는 명칭으로 창단한 단체다. 이후 1986년에 캘리포니아 산 호세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면서 단체명도 바뀌었다.

〈호두까기 인형〉 〈코펠리아〉 등 많은 고전을 공연하고 나햇의 작품들도 중요한 레퍼토리다. 이번 무대에서 최광석은 같은 단원인 마리아 야콥스와 함께 〈코펠리아〉를 선보였다.

97년 미국 네바다 발레단에 입단한 곽규동은 서울 발레씨어터의 주역으로 〈희망〉 〈현존〉등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무용가다. 이번 공연에서는 유지연과 〈지젤〉 2인무를 했고 솔로 작품도 준비했다. 그의 춤집을 익히 알고 있는 안무가 제임스 전의 신작 〈무제〉를 통해 건재함을 알렸다.

강예나가 98년에 입단한 아메리칸 발레씨어터는 세계 최고의 발레단이다. 미국인들은 볼쇼이를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작품의 제작 규모나 수준, 스타들의 숫자나 실력 혹은 시즌의 화려한 명성으로 따져볼 때 어느 하나 뒤지는 것이 없는 발레단이다. 이 발레단의 역사는 물론 유럽처럼 길지는 않다. 1940년에 러시아 출신 발레 댄서들을 중심으로 공연을 시작했고 1957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했다. 77년에 오늘날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 사무실을 두었고 80년에 바리시니코프가, 92년에 현재의 캐빈 맥켄지가 예술감독을 맡았다. 미쉘 포킨, 나탈리아 마카로바, 제롬 로빈스 등 현대발레의 역사가 담겨있는 곳이다. 강예나는 이번에 이원국과 함께 〈차이코프스키 파드되〉를 공연했다.

유지연이 95년에 입단한 키로프발레단은 역사적으로 파리오페라와 아메리칸 발레씨어터를 연결하는 곳이다. 고전발레의 산실로 유명한 키로프 발레단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발레무대는 매우 초라했을 것이다. 프랑스의 쇠퇴기를 대신해서 낭만적인 작품들을 복원했고 오늘날에 고전이라 불리는 명작들을 만들었다.

유지연이 95년에 입단한 키로프발레단은 역사적으로 파리오페라와 아메리칸 발레씨어터를 연결하는 곳이다. 고전발레의 산실로 유명한 키로프 발레단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발레무대는 매우 초라했을 것이다. 프랑스의 쇠퇴기를 대신해서 낭만적인 작품들을 복원했고 오늘날에 고전이라 불리는 명작들을 만들었다. 20세기 초에 러시아 발레의 명성을 드높였던 디아길레프의 발레단도 이곳 출신의 인재들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다.

상트 페테르부르그 마린스키 극장을 본거지로 하는 이 단체의 역사는 1783년에 안나 여제가 만든 황실 발레학교와 발레단에서 시작된다. 가스페로 안지올리

니, 샤를르 디드로, 장 코라이와 쥘 페로, 마리우스 프티파 등 키로프발레단에는 모든 대가들의 흔적이 있다. 유지연은 〈지젤〉외에 키로프의 신세대 안무가 키릴 시모노프가 안무한 〈여자에 관한 습작Etude about the women〉을 공연했다.

배주윤은 96년에 볼쇼이발레단에 입단했다. 단원의 수가 200명이 넘는 규모로도 ‘ 볼쇼이(큰) 한 이 단체는 1780년에 개인단체로 출발했다. 현재의 극장은 1825년에 문을 열었고 1850년에는 이미 155명의 무용단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발레의 중심은 여전히 마린스키(키로프) 였다. 혁명 이후, 수도인 모스크바에 있는 단체라는 이점 때문에 크게 발전했고 50년대 이후 키로프를 능가하며 러시아를 대표하는 발레단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특히 60년대 이후에는 갈리나 우라노바, 유리 그리고로비치, 이렉 무카메도프 등을 통해 20년대에 디아길레프가 기초를 다진 ‘ 러시아 발레의 전설 ’을 다시한 번 전 세계에 입증했다. 블라드미르 바실리에프의 뒤를 이어 현재는 알렉세이 페데이체프가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배주윤은 이번 공연에서 〈에스메랄다〉와 〈베니스 카니발〉을 같은 단원 콘스탄틴 이바노프와 함께 공연했다.

이번 ‘ 한국을 빛내는 무용스타 초청공연 ’은 지금까지의 발레리나 중심에서 벗어나 현대무용가들을 함께 부각시킨 최초의 공연으로 의미가 있었다. 우리 무용가들이 전 세계에 퍼져 고전과 다양한 현대발레를 거쳐 최근의 현대무용까지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깊게 생각할 기회였다. 그러나 한편, 참가자 대부분이 조기유학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살아난 몇몇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깊이 생각할 일이었다. 어느 단체에 입단한 사실 만으로 스타라는 이름을 붙여 마땅한 현재의 목마름이 조금 어색하기는 했지만 이런 관심이 진정한 스타 탄생을 앞당긴다는데 큰 의의를 둘만한 무대였다.

◆◆ 공연, 전시, 출판, 문화예술관련 행사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월간 「문화예술」과 「문예연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월간 「문화예술」의 ‘ 문화예술정보시장 ’은 공연, 전시, 출판, 문화예술행사를 실용정보로 소개하는 지면입니다.
문화예술정보시장에 실리는 내용은 문화예술단체(개인)에서 보내주시는 자료들로 꾸며집니다.
「문예연감」은 한해동안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문예연감」에 수록되는 분야별 문화예술활동 상황은 문화예술단체(개인)에서 보내주시는 자료를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전시, 공연, 문화행사의 자료들은 본원 간행물 발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본원 간행물이 문화예술계 동향을 읽는데 부실함이 없도록 문화예술단체(개인)의 협조를 바랍니다.

- 보내주실 자료 : 문화예술단체(개인)의 공연, 전시, 문화예술관련 행사의 보도자료 및 사진
- 보내주실 곳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총괄팀 월간 「문화예술」, 「문예연감」 담당자 앞
- 주소 : 종로구 동숭동 1-130 TEL : 760-4568 FAX : 760-4694
- E-mail : magazine@kcaf.or.kr